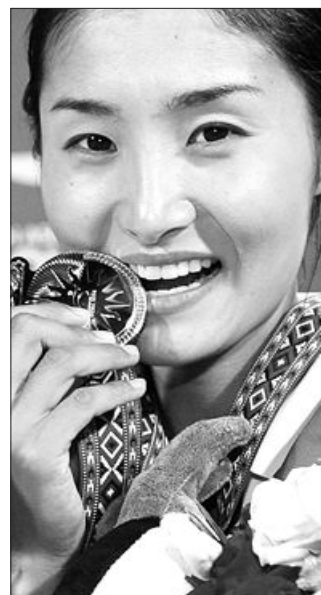




도하 아시안게임 화제



정구 김지은 첫 2관왕

정구 스타 김지은(농협중양화·사진)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2관왕에 올랐다.
김지은-위휴환(부산시체육회)조는 4일 칼리와 코트에서 열린 정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유영동(서울연맹)-김경현(안성시청)조를 5-2로 꺾고 금메달을 땀다.
전날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지은은 한국 선수단에서 처음으로 2관왕에 오르며 다관왕 가능성을 높였다.

2004년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혼합복식, 복식 모두 2위에 머물렀던 김지은은 이날 국내 남녀 최고 선수로 구성된 유-김조를 물리치고 2인자의 설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20년 구력에 국제 대회 출전이 처음이라며 속스러워한 위휴환도 전날 단체전 동메달의 아쉬움을 흘릴 틈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인간 슬러'의 신화를 창조했다.
김지은은 "복식과 단식에서도 우승해 4관왕에 도전해 보고 싶다"며 당당히 포부를 밝혔고 위휴

여자단체전 이어 혼합복식 금메달

환도 "인생 역전의 동반자 정영팔(부산시체육회)과 함께 복식에서 또 한번 일을 저지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구는 전날 남자 단체전만 금메달을 일본에 내줬을 뿐 여자 단체전과 혼합복식에서 우승하며 애초 목표였던 금메달 4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는 4년 전 부산 대회 때 7개 전종목을 석권하며 효자 종목 노릇을 푼 적이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봉 1억 '퀵'

KIA 지명타자 이재주(33)가 프로 데뷔 15년만에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KIA는 5일 "2007년도 연봉 재계약 대상자 54명 중 이재주, 김원섭 등 23명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KIA 이재주 15년만에 역대 몸값...23명 재계약

이재주는 2006시즌 연봉 5천800만원에서 72.4%(4천200만원) 인상된 1억원에 재계약했고, 투수 김진우는 8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오른 9천5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현근은 50%인상된 6천만원, 김원섭은 89.3% 오른 5천300만원, 진병두는 1천500만원 오른 7천만원에 각각 재계약했다.
특히 이재주는 지난 92년 강릉고 졸업 후 800만원을 받고 태평양에 입단한 뒤 현대, KIA를 거치면서 무려 15년만에 연봉 1억원에 진입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지난 2002년 KIA 유니폼을 입고 대타 요원으로 활약했던 이재주는 올해 4번 지명타

자로 115경기에 출전, 377타수 107안타 타율 0.284, 13홈런 59타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동현, 김성수, 진민호(이상 투수), 조경환, 김주영(이상 타자), 차일복(포수) 등은 200만원~800만원씩 소폭 인상됐다.
또 올 11월 상무에서 전역한 투수 고우석은 연봉(3천만원)이 동결됐고, 투수 김희걸과 포수 송산은 지난해 5천300만원, 3천만원에 각각 500만원, 300만원이 삭감됐다.
한편 KIA는 나머지 재계약 대상자 31명 과도 조만간 재계약 협상을 마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모저모

안금애, 北에 첫 금 선물

여유도 52kg급 몽골선수 꺾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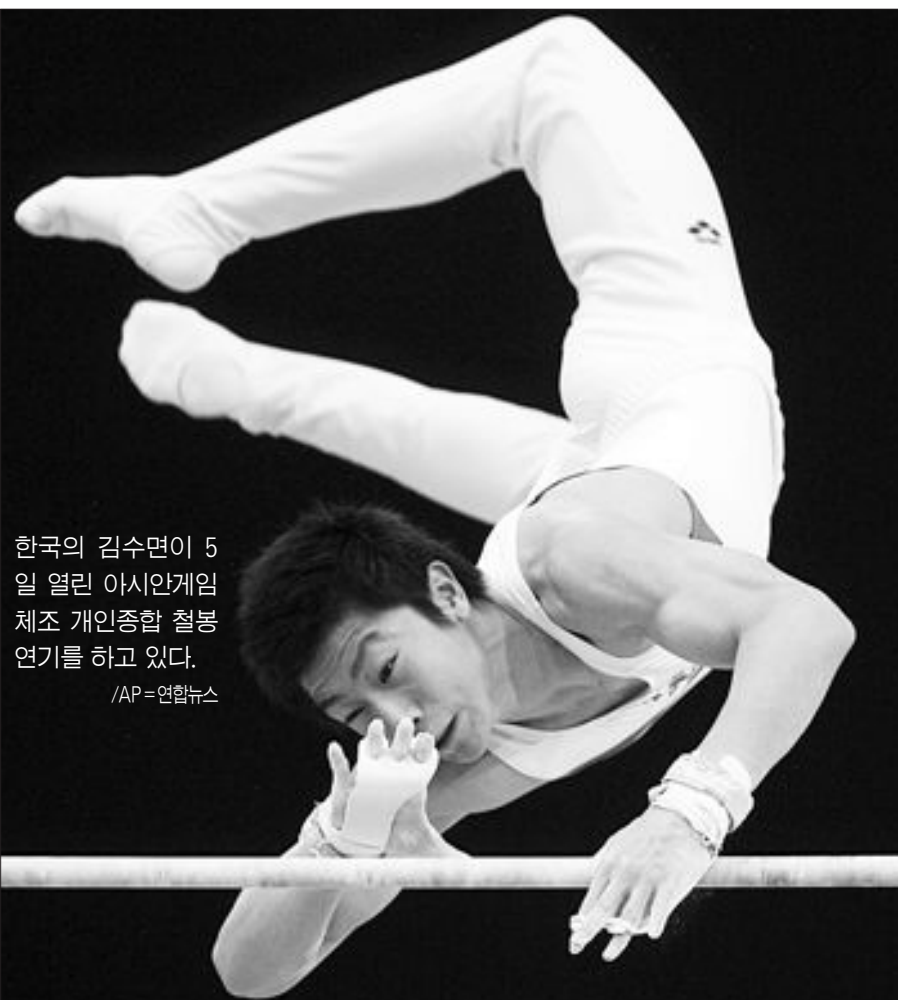
○~여자유도 52kg급에 출전한 안금애(26)가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안금애는 5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 클럽에서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52kg급 결승에서 본드마 문크바타르(몽골)를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지난 3월 결혼한 북한의 '여자유도 영웅' 계순희(27)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연패의 위업에 도전한다.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유도 선수 박학영(43) 서기장은 이날 카타르 스포츠 클럽에서 '계순희 선수'가 내년(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57kg급에 나올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열린 여자유도 52kg급 결승에서 안금애가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긴 후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이라크 20년만에 첫 메달

○~1986년 이후 아시안게임에 나오지 못했던 이라크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20년만에 메달 맛을 봤다.
이라크의 '역사' 하렘 알리(21)는 5일 열린 남자 유도 77kg급에서 함께 중량 341kg을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장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가 20년만에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첫 메달이다.
이라크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땀지만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제명 처분을 받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라크는 2003년 12월 OCA 집행위원회에서 복권 결정을 받았고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양궁, 육상, 보디빌딩, 비치발리볼, 복싱, 사이클, 축구 등 18개 종목에 8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의 김수면이 5일 열린 아시안게임 체조 개인종합 철봉 연기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체조 개인종합·단체 노메달 '충격'

한국 체조가 도하 아시안게임 남녀 개인종합에서 노메달에 그쳤다.
김승일(한양대)과 김수면(한국체대)은 지난 4일 아스파이아홀에서 끝난 체조 남자 개인종합 경기에서 각각 90.850점, 89.300점으로 5위와 8위에 머물렀다.
여자부의 배물음(광주체고)과 유한솔(포철고)도 54.200점, 54점150점으로 7,8위에 그쳤다.
남녀 단체전에서 9연패에 성공한 중국은 이날도 세계선수권 3관왕에 빛나는 양웨이와 남자부에서 95.500점, 혜닝이 59.450점으로 월등한 기량을 과시하며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앤서니 김 PGA 입성

캘리포니아스 통과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와 재미교포 앤서니 김(21·한국명 김하진)이 나란히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 입성했다.
위창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틴타의 PGA웨스트레이크(파72)에서 열린 PGA 캘리포니아스 마지막 날 1언더파 71타를 쳐 6라운드 합계 11언더파 421타로 공동 16위에 올라 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위창수는 2004년 캘리포니아스를 한 차례 치러 작년 투어에 데뷔했으나 성적 부진으로 상금 랭킹 125위에 들지 못해 '재수'를 통해 PGA 투어에 복귀했다.
올해 프로로 전향한 앤서니 김은 마지막 날 이븐파 72타를 쳐 최종 합계 12언더파 420타의 빼어난 성적을 올리며 공동 13위로 통과했다.
프로 9년차인 조지 맥닐(미국)이 합계 23언더파 409타로 공동 2위와 5타수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양용은(34.케이지디자인)은 초반부터 부진을 성적을 내다가 5라운드 끝난 뒤 스톱어아웃으로 실격 처리돼 PGA 투어 등용 무대 도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KPGA 양용은 '대상'...강경남 '우수선수'

'호랑이 사냥꾼' 양용은(34·케이지디자인)이 2006년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용은은 5일 오후 6시30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6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국내의 대회에서 한해 거둔 성적을 포인트로 산정해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은 올해 삼금왕을 차지한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과 미국프로골

프(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한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양용은과 격함을 벌였다.
시즌 2승과 함께 삼금액 3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연소 삼금왕에 오른 강경남은 국내 부문 우수 선수상과 함께 시즌 평균타수 최저 선수에게 주는 덕춘상, 올해의 베스트 샷 상 등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쏘쏘쏘! 애들은가라!!
설운도
12월 7, 8일
부담전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우승은수매트!
15년전부터 1등우승메트에서 만든 믿을수 있는 제품
3시방방방! 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
할부할부
1600-7234